

이회창 '대권 3수설'에 정치권 요동

한나라, 대선 앞두고 적전분열 양상

신당, 국면 대반전...어부자리 기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재출마설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설마하는 가운데서도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은 최소한 국면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이회창 전 총재의 대선 재출마설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전 총재의 재출마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보수층 표심의 분열로 이어지면서 눈앞에 둔 정권교체가 날아가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이 전 총재의 재출마설에 '설마' 했던 이명박 후보 측은 이제는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물밀 접촉을 통해 출마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이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장을 지낸 박희태 의원은 29일 SBS라디오에 출연,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측근도 "이 전 총재의 출마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캠프 측 인사들은 이 전 총재 주변 인물들을 만나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은 최근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핵심 인사들의 모임인 '함덕회' 만찬 모임에 참석, 전반적인 기류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금명간 이 전 총재를 직접 찾아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 측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표 측 일부 인사들이 이번 사태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 측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펼쳐 뛰고 있다.

박 전 대표 측 인사는 "박 전 대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경선 승복과 대선 협조 입장장을 밝혀 온 만큼 그것을 의심한다면 그쪽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



이회창 전 총재의 지지모임인 '희망나라 국민포럼'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후 이 전 총재의 남대문 사무실 앞에서 대선출마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쏘아붙였다.

이 전 총재의 대선 재출마를 놓고 한나라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신당은 반색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 전 총재가 실제 선거에 출마해 영남과 보수층의 표가 갈리면 현재 20% 안팎에 머무는 정동영 후보로서는 한판 승부를 펼쳐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총재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나라당의 내부 갈등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도.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昌 출마시 지지율 13.7%...이명박 44.2%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출마를 실행할 경우 14% 정도의 지지율을 얻을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불교방송(BBS)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오피니언리서치에 의뢰, 지난 27일 전국의 성인 남녀 2천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전화여론조사에서 대선 출마를 전제한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은 13.7%에 달했다.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44.2%,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20.4%에 이어 3번째

로 높은 수치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6.0%,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3.4%, 민주당 이인제 후보 3.2%를 앞서는 것이다.

이 전 총재의 지지율은 지역별로는 대전(20.5%), 충남(17.9%), 경남(17.9%), 울산(17.3%)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찬성(39.9%)보다 반대(47%) 의견이 더 많았다.

/연합뉴스

DJ, 납치사건 파장 속 訪日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일본 리즈메이칸(立命館) 대학의 초청을 받아 교도를 방문하기 위해 29일 오전 출국했다.

김 전 대통령은 3박4일간의 방일기간에 리즈메이칸 대학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한반도 평화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또 리즈메이칸대 부설 코리아연구센터 현 판식에 참석하고 TBS TV, 세카이지 등 일본 언론과의 회견, 재일동포 오찬 행사를 이따라 갖는다.

리츠메이칸대 명예박사학위 받아
정부 'DJ 납치' 日에 공식 사과 결정

의 공권력 행사"라며 한국 정부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통령은 "특강을 하고 난 뒤 현지 언론과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 등에 대해서 김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김대중 납치사건' 발표와 관련, 이르면 29일 중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유감의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08년 국가·지방직 합격 대비는 지금부터가 좋습니다 =

7급 공무원 합격 특강

= 강좌 안내 =

④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④

기강 : 11월 1일 주·야 (풀과)반 모집 (전직종처음시작반)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무등고시학원

www.mdgos.co.kr

222-4560

11월 1일 대개강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범대 편입반

액대, 한의대 편입반

MEET/ DEET

TEPS 최단기 고득점반

* 교육대상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000만원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직자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증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이간반, 주말반)

④노동부자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222-4560, 232-1088 http://www.hedu.co.kr

수의계약 남발·쾌적한 학교 조성 대책 있나

■ 광주시의회 시교육청 질의

◇ 고액공사 수의계약 남발=김월 출 의원(민주·서구4)은 "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학교시설사업 집행자 침상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2004년 이후 1억원 이상 규모의 수의계약만 11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용역을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은 산하 지역 교육청은 같은 기간 2천만~9억 3천만원에 이르는 26건의 고액 시설 공사와 용역을 수의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시 교육청은 이에 대해 "향후 시설 사업비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 각급 학교 실내 공기질 악화=김 권(민주·북구4) 의원은 "교육환경 여

건 개선과 시설 노후 학교에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사업비가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 학교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교실 내 공기오염은 학습환경을 해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며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 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들은 대부분 환기와 청소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각 학교에 주기적인 환기와 청소 방 법 등을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 목적사업비 지원 천차만별=조호 권(민주·북구4) 의원은 "교육환경 여

다 늘고 있다. 2006년을 기준으로 세 목별 과오납 현황은 주민세가 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등록세 688억 원, 지방교육세 264억 원 등이었다.

전남은 144억7천600만 원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위, 광주는 29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4년 3천361억 원, 2005년 4천144억 원, 2006년 4천881억 원으로 해마다

/총회기자 redplane@

지방세 과오납 광주 93억, 전남 144억원

지자체가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과오납금이 해마다 증가해 2006년에만 광주 93억8천여만원, 전남 144억7천여만원 등 전국에서 모두 4천8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4년 3천361억 원, 2005년 4천144억 원, 2006년 4천881억 원으로 해마다

세계 최초 부부대통령 탄생

아르헨티나 대선 페르난데스 당선

아르헨티나에서 28일(이하 현지시각)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 후보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54) 상원의원의 당선이 확정됐다.

페르난데스 의원은 전국 7만여 곳의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번 대선에서 57.8% 개표가 진행된 29일 새벽 1시 50분 현재 44%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득표 21.8%와 18.2%를 각각 기록하고 있는 중도 좌파 후보인 엘리사 카리오 전 연방하원의원과 중도우파 후보인 로베르토 라바나 전 경제장관을 비롯한 야권후보들은 시간이 갈수록 득표율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일제히 폐

배를 공식 인정했다.

이번 선거는 2천710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최종 개표결과는 29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선거법은 대선에서 한 후보가 4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40% 이상을 득표하고 2위와 1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벌 경우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의원은 이에 앞서 전날 밤 10시께 선거캠프가 차려진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남편인 네스토로 키르치네르 대통령과 함께 도착, 수백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일찌감치 당선을 자축하는 연설을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28일(현지시각) 실시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상원의원(현 대통령 부인)이 지지자들에게 승리의 사인을 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구 분	교과과정	교육기간	개 강
영세자영업자	기획사무자동화 인터넷상시점	3개월	11월 1일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1월 5일

CAD	2개월	11월 1일
MOS(Master)	2개월	11월 5일
정보통신설비	2개월	11월 1일
정보처리	2개월	매월 초
정보보호 기초 1,2	5주	매월 초

부동산설무

구 분	교과과정	교육기간	개 강
재직자 및 일반인	공인증개사	2개월	11월 12일